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할례(割禮)

[창세기 17:1]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그것은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갈의 사건이 있는 지 13년 후의 일이다. 성경은 소수의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나 내용들만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으시고 특별한 때에 나타나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계시 사건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들의 기록이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그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엘 샷다이)임을 증거하셨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창 18:14; 눅 1:37). 둘째, 그는 아브람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다.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위선적으로나 가식적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아브람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완전하다’는 원어(타밋)는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양심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의롭고 선하고 흠 없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다.

[2-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앞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5:18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본장은 본격적으로 그 언약에 대해 말한다. 본장에는 ‘내 언약’이라는 말이 9번(2, 4, 7, 9, 10, 13, 14, 19, 21절),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7, 11, 19절), 그냥 ‘언약’이라는 말이 1번(13절), 도합 13번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당

사자와 의논하는 쌍방적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 언약이다. 그것은 일종의 명령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진 약속의 형태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아브람은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5-6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히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서 나라들과 열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7-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그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거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였다(창 12:7; 13:15; 15:18).

[9-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켜야 할 내용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의 명령으로 표현되었다. 하나님

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에게 해당되었다. 남자는 자손들을 대표하였다. 10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민족적 성격을 넘어섬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다른 종들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초민족적 성격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약시대에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시하였다고 보인다.

[11-12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고 명령하셨다. 할례는 남자의 양피 곧 음경의 귀두를 찢 기죽을 자르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포경수술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으며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다. 남자의 양피의 제거는 죄와 불결을 제거하는 뜻이 있었다. 남자의 성기는 인간의 죄와 정욕이 표출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인다. 할례는 성결과 절제를 교훈한다고 본다.

[13-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를 그들의 살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들의 사회로부터의 출교, 혹은 사형,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 징벌로 인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15-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사라’라는 말은 ‘공

주 혹은 귀부인’이라는 뜻이다(BDB).

[17-19절] 아브라함이 앞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앞드려 웃으며 100세된 자신과 90세된 아내 사라에게서 어떻게 자식이 날까 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은 ‘그가 웃는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웃음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었다.

[20-21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衆多)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도 번창케 하실 것이며 그가 열두 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분명하게 약속해주셨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마 6:9). 예수께서 올라가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사도행전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곳을 사모해야 한다.

[23-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

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베 때는 13세이었던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99세이었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이었다.

본장의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초민족적 성격을 가졌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해당되는 점이 있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갈 3:29).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엡 2:19, 36),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다.

둘째는, 할례의 진리이다. 할례는 죄와 불결을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하였고, 그것은 중생(重生)의 씻음과 성화를 의미하였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레 11:44; 19:2).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의 죄사함과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성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하며(신 10:16; 렘 4:4; 9:26), 그것을 강조한다(롬 2:28-29).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살전 4:3). 죄사함과 거룩한 삶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의 주요한 내용이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는 교훈이다. 그것은 경건한 삶과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고 선한 삶을 가리킨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다. 또 의롭고 선한 삶이 완전한 삶이다.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된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다. 성결과 절제, 의로움과 선함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오후설교 | 레위 지파의 임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생활에는 회막 곧 성막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을 상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 사역은 모든 죄 문제의 해결이 되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요 3:16)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요 5:2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1-24).

이 의미심장한 성막의 봉사는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들을 대신한 자들이었다(민 3:12-13). 외인은 성막의 일을 할 수 없었고 외인은 성막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민 3:10, 38). 민수기 4장은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좀더 자세히 증거한다.

레위의 세 아들은 고탕과 게르손과 므라리이었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각각 임무가 다르게 주어졌다. 우선,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었다. 본장에는 일곱 번이나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표현이 나온다(3, 23, 30, 34, 39, 43, 47절). 다른 지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연령인 20세 이상과는 달랐다. 30세는 경건과 인격성을 고려한 것 같다. 그때에 사람은 어느 정도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는 것 같다. 50세는 신체적 힘의 노쇠를 고려한 것 같다.

[1-2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 . .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증거궤(법궤), 진설병의 상(떡상), 등대, 금단(분향단), 모든 거룩한 그릇들, 그리고 단(번제단) 등을 청색(6, 7, 9, 11, 12절), 홍색(8절), 또는 자색(13절) 보자기들로 싸고 해달(타키쉬)[돌고래(BDB, NASB)의 가죽으로 덮었다. ‘청색’이라는 원어(테켈렛)는 ‘보라색’(BDB)이나 ‘보라빛 자주색’(KB)에 가깝다고 한다. 해달돌고래의 가죽도 고대 헬라이어역에 의하면 그 색이 히아신스색(일종의 보라색)이라고 한다. 보라색, 홍색, 자색은 공통적으로 피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것이다.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다.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롬 3:25). 주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히 9:12).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을 것이다(히 9:2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히 10:19).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구들을 다 닦은 후에, 고핫 자손들은 그것들을 떼어 운반해야 하였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은 일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성막의 모든 것들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맡았다.

고핫 자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본문 15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물들을 만지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성물들을 만지거나 보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규례이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피조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해 게설 뿐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순결하시다. 그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우리가 호기심으로라도 함부로 변론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그는 십계명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출 20:7).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 그는 산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못하게 명하셨다. 또 그는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고 크게 진동했고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그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다(출 19:10-21).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증거된다. 욥기 11:7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고 말하고, 욥기 36:26은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욥기 37:23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시편 145:3도 “여호와와 광대하시니. . .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고 말한다.

사무엘상 6:19-20에 보면, 후에 벤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와 케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50,070명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고, 사무엘하 6:6-7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케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 성으로 모

셔오려고 했을 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수레를 몰던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케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 케 곁에서 죽사하였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21-3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 회막과 그 덮개, 문의 휘장들, 해달(돌고래)의 가죽 덮개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 게르손 자손들의 일들과 므라리 자손들의 일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였다.

[34-49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은 도합 8,580명이었는데, 고핫 자손들이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 므라리 자손들은 3,200명이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깨닫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자. 성막에는 보라색, 홍색, 자색 천이 사용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히 9:12).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히 10:1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둘째로, 우리는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준비된 일꾼이 되자. 30세는 일반적으로 복음 진리와 사명에 대한 상당한 깨달음,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는 나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인가?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로 살지 말고 일할 만한 나이가 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자.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지만, 성물을 만지거나 보거나 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조세계로부터 초월해계신 분이시며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히 12:28).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 스마트폰에서 설교 듣기: 인터넷 검색창에 hjdc.net 입력.